

# 아찌 분리주의 운동 일고

장 원 석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문요약>

수마트라섬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아찌 지역은 지난 130년 동안 전쟁과 반란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으며 그 결과 폭력의 반다 혹은 저항의 섬으로 불리게 되었다. 특히 1976년 이후 아찌인들은 독립국가의 건설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무장투쟁을 불사해 왔다. 인도네시아 군도의 여타 지역에서도 자원 개발이나 지역적 소외를 문제 삼아 불만이 표출되어 왔지만 아찌에서와 같은 극단적인 무장봉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찌인들이 단순한 자치가 아닌 독립을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은 아찌 분리주의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검토한다. 반식민지 투쟁의 유산, 자카르타 정부의 배신과 과도한 통합정책, 경제적 박탈감, 하산 띠로의 리더십 등 4개의 범주를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시도한다. 그 다음에 게릴라전과 대게릴라전의 전개과정을 1953년의 다룰 이슬람 봉기, 1976년의 자유아찌운동 출범, 1989년의 무장투쟁 재점화와 군사작전 지역 설정, 1998년 수하르토 퇴진과 아찌 독립 운동의 부활의 4단계로 정리한다. 그리고 GAM과 정부군의 전략을 군사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의 맥락에서 간단히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2005년 8월 헬싱키 평화협정 이후의 아찌 사태를 개관하고 잠정적인 결론을 시도한다.

주제어 : 아찌 분리주의, 하산띠로, 자유아찌운동

## 1. 머리말

수마트라섬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아체특별주는 면적이 55,390 평방 km이며 인구는 약 400만 명이고 3개 시 8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카의 베란다(verandah of Mecca)라고 불리어질 만큼 이슬람교가 주민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곳은 원주민 전체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제대식 2003, 66). 원주민의 80%가 아체족이며 그 외에 가야족과 가야알라스족 등 6개의 종족이 거주하고 있다. 아체인 대부분은 구릉지대에서 환금작물(후추, 코브라, 커피, 고무, 담배 등)을 재배하거나 북부 해안의 비옥한 평원을 따라 쌀농사를 짓고 있다. 아체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은 자바인으로서 그 숫자는 28만여 명에 이른다. 일부 공직자를 제외한다면 그들 대부분은 군도 주변지역의 인도네시아화를 위해 자바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다.

아체 지역은 지난 130년 동안 전쟁과 반란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으며 그 결과 폭력의 반다(Banda) 혹은 저항의 섬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특히 1976년 이후 아체인들은 독립국가의 건설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무장투쟁을 불사해 왔다. 인도네시아 군도의 여타 지역에서도 자원 개발이나 지역적 소외를 문제 삼아 불만이 표출되어 왔지만 아체에서와 같은 극단적인 무장봉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체인들이 단순한 자치가 아닌 독립을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은 아체 분리주의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검토한다. 반식민지 투쟁의 유산, 자카르타 정부의 배신과 과도한 통합정책, 경제적 박탈감, 하산 띠로의 리더십 등 4개의 범주를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시도한다. 그 다음에 게릴라전과 대게릴라전의 전개과정을 1953년의 다룰 이슬람 봉기, 1976년의 자유아체운동 출범, 1989년의 무장투쟁 재점화와 군사작전 지역 설정, 1998년 수하르토 퇴진과 아체 독립운동의 부활의 4 단계로 정리한다. 그리고 GAM과 정부군의 전략을 군사적 차원과 정치

적 차원에서 간단히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2005년 8월 헬싱키 평화협정 이후의 아제 사태를 개관하고 잠정적인 결론을 시도한다.

## II. 아제 분리주의의 역사적 배경

### 1. 술탄 왕조의 정체성과 반식민지 투쟁의 유산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1471년 아제 지역에 술탄이 지배하는 아제 다 루살랍 왕국이 건설되었다(Reid 2006,10). 이슬람을 정신적 원동력으로 통일을 성취한 아제 왕국은 1518년 포르투갈 함대의 침략을 격퇴함으로써 국가적 자존심을 키워나갔고 술탄제와 이슬람 공동체, 아제어에 입각한 민족적 정체성을 구축하였다. 이후 아제 왕국은 주변 국가나 부족 집단들에 의해서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17세기 이스칸다르 무다 왕조(1607-1636)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에 아제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해로 상의 전략적 위치로 인하여 강력한 무역왕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하여 인도네시아 군도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한 네덜란드는 전세계 후추 공급량의 2분의 1 이상을 공급해 온 아제 왕국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식민통치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원정대를 파견하여 막대한 희생을 치른 끝에 왕국의 수도인 반다 아제에 입성하여 아제 왕국을 강제 합병하고 술탄 제도를 폐지하였다. 아제 왕국의 마지막 술탄 무함마드 다우드샤와 땡꾸 쩌디띠로를 지도자로 하는 올라마(ulama)<sup>1)</sup>들은 끈질긴 게릴라전을 전개함으로써 아제 전쟁(1873-1903)은 30년 동안 계속되었다. 아제 전쟁은 20세

1) 올라마는 이슬람의 율법 지식인을 말한다. 이들은 높은 종교적 지식과 청렴함으로 이슬람 대중의 존경과 믿음을 얻었다. 이슬람 사회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 세력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던 시기에 자칫 분열되기 쉬운 국가를 안정시키고 일반 대중들을 정신적으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기의 베트남전을 연상케 하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반제국주의 투쟁이었으며 또한 이슬람의 지하드를 예고하는 전쟁이기도 하였다(Reid 2006, 14). 구(舊)귀족세력인 울레발랑(Uleebalang)의 협력에 힘입어 친식민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쩡디띠로와 그의 추종자들은 1911년까지 항쟁을 계속하였다. 그 후 전쟁이 종료되고 네덜란드의 식민통치가 시작되었지만 아찌인들의 정신적 저항은 계속되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제가 패망하자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아찌 지역은 공화국에 편입되었다. 네덜란드 정부가 기득권을 회복하기 위해 구식민지에 복귀하자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사이에 독립전쟁(1945-1949)이 시작되었다. 이때 아찌는 위기에 처했던 인도네시아 군대의 마지막 보루로서 병력과 자금을 지원하며 임시수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 무정부상태 속에서 사실상의 자치 정부를 운영했던 아찌 주민들은 자신들의 공헌에 자부심을 느끼며 종전 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기를 기대하였다.

## 2. 자카르타 정부의 배신과 과도한 통합정책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아찌 주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1950년에 헌법 체제를 정비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찌 지역을 북부 수마트라주의 하위 행정단위로 지정하였다. 또한 수카르노 정부는 국가통합을 강조하는 뽀짜실라(Pancasila)<sup>2)</sup>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이슬람으로 무장된 아찌 주민들의 정치 문화에 대해 경계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1953년 다우드의 반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아찌를 다시 주로 복귀시키고 특별한 지위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자치의 범위는

2) 뽀짜실라는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신앙심, 정의롭고 예절 바른 인간성, 하나로 통일된 인도네시아, 대중합의와 대의제도를 통한 지혜로운 정책에 의해 인도되는 민주주의, 모든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사회정의라는 다섯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자의 신을 섬기되 서로 배척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뽀짜실라의 내용은 통일된 인도네시아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와 교육, 관습 등의 부문에 국한되었으며 그것 역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새로 들어선 수하르토 정부의 신질서(New Order) 정책 역시 다인종국가인 인도네시아를 통합하려는 일념 하에 하나의 민족을 강조하고 인위적인 이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아제의 자바화(Javanization)가 진행되었다. 신질서 정책은 또한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정치체제를 강요함으로써 지방의 정체성을 파괴하였다. 보상과 처벌의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관료 집단이 형성되었고 전통적인 올라마들은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친정부 세력으로 변질되었다. 수하르토 정권이 해체되면서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아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것들은 과거와 달리 아제인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였지만, 이 시점에 이르러 아제인들은 자카르타 정부의 신의를 믿지 않았으며 따라서 특별법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래 특별한 형태의 자치나 혹은 연방제를 요구했던 아제 지도자들의 주장은 점차 독립국가의 건설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 3. 경제적 박탈감

아제의 자원개발은 네덜란드가 아제를 점령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식민지 정부의 개발사업은 석유 자원과 고무 플랜테이션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식민지 정부의 경제정책은 아제 지역을 국가 경제와 세계 시장을 부양하는 원료 생산지로 만들었으며 외부로부터 유입된 자본이 개발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게 되었다. 또한 자바로부터 건너온 이주민들이 하급관리자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산 활동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아제는 인도네시아 군도와 통합되었으며 그것의 변방 지역으로 전락하였다(Reid 2006, 122).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귀족 계급인 올레발랑은 식민 당국과 협력하고 어느 정도 혜택을 입었으나 대다수의 농민계급은 완전히 소외되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외국인 자본가들이 철수했지만 중앙 정부와 자카르타의 자본이 그것을 대체하

였고 동일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 대규모의 천연가스가 발견되자 정부는 모빌 오일(Mobil Oil)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생산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천연가스의 개발 수익금 역시 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독점하였으며 개발이익의 10% 지역 환원을 요구하는 아체 사회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경제성장을 우선적인 목표로 추진했던 수하르토 정부는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벌목사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아체는 홍수 등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농민들은 토지를 잃거나 강제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입의 11%를 제공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하나만으로도 1년에 26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아진 것이 없고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남아있게 된 아체인들은 자카르타 정부가 자신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Skuma 2004, 4).

#### 4. 하산 띠로의 리더십

식민지 전쟁의 전설적 영웅 쥘다띠로의 후예인 하산 띠로는 제3세계 지도자 성장과정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독립전쟁 당시에는 소년병으로 참전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최고 정치지도자의 보좌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 콜롬비아 대학으로 진학하여 법학과 정치학을 수학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유엔 대표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다. 다우드의 반란이 일어나자 즉각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다우드의 대리인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투쟁의 대의를 전파하는데 앞장섰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귀환명령을 거부한 하산 띠로는 뉴욕에 계속 거주하면서 남아시아와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을 상대로 지원을 요청하였고 특히 1955년 반둥회의에 불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묵살되었다. 1976년 아체로 돌아온 하산 띠로는 다우드의 지지 하에 자유아체운동(GAM)을 조직함으로써 본격적인 독립투쟁을 시작하였다.

혁명정부가 궤멸되자 스웨덴으로 망명한 띠로는 현지에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아제의 무장투쟁을 원격 조정하였다. 노선 차이로 인해서 망명정부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었으나 그 누구도 하산 띠로의 지도력을 넘보지 못했으며 아제의 게릴라부대 지휘관들도 대부분 하산 띠로의 영향하에 있었다. 그는 일부 온건파 운동가들의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배격하고 시종일관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비민주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최초에 하산 띠로는 다우드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연방제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1976년 이후 아제의 독립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Reid 2006, 135).

### Ⅲ. 게릴라전과 대게릴라전의 전개과정

#### 1. 다우드의 봉기(1953-1959)

1951년 7월 아제를 주로 승격시키는 법률이 폐지되자 아제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었다. 한편 독립전쟁 당시 단행된 사회개혁 과정에서 개혁적인 종교지식인 집단인 올라마협의회(PUSA)에 의해서 토지와 재산을 몰수당했던 귀족 계층이 과거의 권리 회복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1953년 9월 아제의 올라마였던 다우드 버르흐(1899-1987)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연방국가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제 자치국을 선언하고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안보 거점과 공공기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다우드의 반란은 신정일치를 주장하는 다룰 이슬람(Darul Islam)<sup>3)</sup> 봉기와 궤를 같이 했으며 자바 섬의 무장 세력과 공동보조를 취했다. 이에 자카르타 정부는 1956년 아제의 주 지위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했고 1959년에는 아제 주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성명

3) '이슬람의 세계'라는 뜻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교 국가건설운동'을 일컫는다.

을 발표하였다. 반란군 내부적으로 강온파간에 이견이 표출되었고 연방제(federalism)를 고집하는 다우드와 달리 현실주의자였던 하산 살레는 아제에 대해서 종교와 교육상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협상안에 합의하였다. 다우드는 평화협정에 응하지 않고 현지를 이탈했으나 1962년 결국 고향으로 복귀하였다. 다우드의 해외 대변자로 활약했던 하산띠로는 정부에 항복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였다. 다우드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지만 여기에 가담했던 다수의 주민들은 후일 자유아제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세력을 구성하게 된다.

## 2. 자유아제운동(GAM)의 출범(1976-1979)

1976년 하산 띠로가 이끄는 70여명의 전문직업인과 지식인들은 자유아제운동을 조직하고 아제 독립선언을 하였다. 하산 띠로는 네덜란드가 1949년 인도네시아에 아제를 양도한 것은 법적으로 원천무효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아제 술탄왕조의 계승국가(successor state)임을 주장하였다(Reid 2006, 135). 하산 띠로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고 300여명의 추종자들이 제한된 무기와 함께 무력항쟁을 시작하였다. 정부군이 진압작전에 착수하자 이들은 밀림지대로 도피하여 2년 4개월 간 게릴라전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핵심인사들이 체포되거나 처형되었고 결국 하산 띠로는 스웨덴으로 도피하여 새로운 망명정부를 수립하였다. 현지에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50여명은 은둔한 상태에서 비밀리에 투쟁을 계속하였다. 비록 봉기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아제 독립의 대의가 주민들에게 폭넓게 전파되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조 세력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3. 무장투쟁의 재점화와 군사작전지역(DOM) 선언(1989-1998)

이슬람 국가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요청하던 하산 띠로는 리비아의 가



다피 대통령에게서 게릴라 훈련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 후 약 300여 명의 아제 출신 자원병들이 리비아에서 전투술과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고 말레이를 경유하여 아제로 입국하였다. 1989년부터 이들은 군대와 경찰, 관공서를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하는 등 산발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지식인들의 가세에 대한 우려와 주요 산업시설 보호 문제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아제 주지사는 정부에 군대 증파를 요청하였다. 약 750 여명으로 추산되는 게릴라 부대를 진압하기 위해 당시 아제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6천명의 병력 외에 6천 명의 외지 병력이 추가로 투입되었고 즉각적으로 군사작전지역(DOM)이 선언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분리주의 운동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 집단을 소탕한다는 명분을 강조함으로써 저항세력의 정치적 동기를 무시하려 하였다. 진압군은 주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반군을 제압해야 한다는 대게릴라작전의 핵심원칙<sup>4)</sup>을 어기고 처음부터 무차별적인 진압에 착수하였다. 군부의 의도는 충격요법(shock therapy)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게릴라부대에 대한 협조를 차단하는데 있었다(Skuma 2004, 10). 수천 명의 주민들이 고문과 강간을 당하거나 약식 재판과 즉결 처분을 받았으며 처형된 시체들을 도로나 공공장소에 버려졌다. 진압군은 또한 민병대와 자경단을 운영하여 6만 여명의 주민들을 전투 및 정보 수집활동에 투입하였다. 젊은이들은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목표 지역을 수색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으며 현지 주민들은 스파이 활동을 강요받았다. 그것은 민간인들을 전투 상황에 끌어들이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에 반하는 조치였다. 1992년에 이르러 반군의 전투력은 거의 무력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토화 작전은 수많은 희생자 가족을 양산함으로써 1998년 민주화 이후 한편으로 보복살인의 악순환을 초래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아제의 반란이 전주민적 투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4) 이에 대해서는 Leroy Thomson, *The Counter Insurgency Manual* (London: Greenhill Books, 2002) 참조.

#### 4. 수하르토의 퇴진과 아체 독립운동의 부활(1998-2004)

##### 1) 동티모르 변수와 자유아체운동의 전략

1999년 동티모르 독립은 GAM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정이 아체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아체의 상황을 동티모르와 비교하며 진압군에 의한 인권 유린과 민병대의 만행을 강조하였다. 동티모르의 독립이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는 사실을 깨달은 GAM은 전통적인 게릴라전과 더불어 외교전에도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GAM은 독립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와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협상 개최를 요구하고 국제인권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 아체 사태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결국 GAM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실패하였다. 유엔과 미국은 정부군의 과도한 토벌작전을 비난하면서도 인도네시아의 영토 보전을 사실상 지지하였다. 여기에는 9·11 이후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 외에도 납치와 인질 등 GAM의 일탈행위로 인해 국제사회의 시각이 싸늘해진 점도 한 원인이 되었다(Reid 2006, 243-244).

##### 2) 자카르트 정부의 유화정책 실패

1998년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하자 군부는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시민단체들은 군사정권하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고 아체에서도 1990년대의 군사작전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군 최고사령관인 위란토는 군사작전지역 선언을 철회하며 아체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였고 외지인 부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철수하는 부대와 주민들 사이에서 충돌사태가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아체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였다.

1998년 말이 되자 GAM 역시 군과 경찰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수세에 몰렸던 정부군은 다시 군대를 재배치하고 일련의 작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민간 정부가 들어서고 군의 지위가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신정부는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의 게릴라 토벌전이 야기한 인권유린 사태를 의식하고 있었던 정부는 군대 대신 경찰을 앞세웠고 소극적인 치안회복 작전으로 일관하였다. 지휘체계가 이원화되고 군보다 무장이나 훈련이 덜 된 경찰이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군사 작전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일반 경찰 외에 경찰 기동타격대(Brimob)가 투입되었는데 이로 인해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기율과 직업정신이 결여된 경찰 특수부대는 임의로 고문과 처형을 자행함으로써 과거 군사작전지역 시대의 토벌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었다(Sukuma 2004, 17).

1999년 와히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인도네시아 보안군과 GAM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2000년 스위스에 본부를 둔 인도주의적 국제구호단체인 앙리 뒤낭 센터(HDC)의 중재로 대화에 착수한 양측은 다보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잠정적으로 휴전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군 내부 일각에서 이러한 조치에 불만을 보였고 GAM 역시 이 기간을 전력 보강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협정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곧 파기되었다. 후임자인 메가와티 대통령 역시 적대적 행위 중지 협약(COHA)을 재차 체결하고 평화시대 설정, 필리핀과 태국의 평화감시단 파견 등 보다 적극적인 시도를 재개하였다. 그렇지만 양측 모두 상대방의 진의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고 충돌이 계속됨으로써 협약은 다시 한번 무산되었다. 2003년 5월 동경에서 양측은 최종적으로 협상에 임했으나 GAM이 정부 측이 제시한 조건 - 인도네시아 국가체제 인정, 특별자치 수용, 즉각적인 무장해제 등 3개 조항 - 을 거부하자 경찰 주도하의 보안작전은 종료되고 본격적인 군사 작전이 재개되었다(Skuma 2004, 21). 이 시기에 GAM은 무장을 강화하

고 병력을 보강하였으며 아체 행정구역 대다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 3) 최후의 군사작전과 쓰나미 사태

협상이 결렬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1975년 동티모르 작전 이후 최대규모의 군사작전에 착수하였다. 암호명 '통합작전'(Operasi Terpadu)으로 알려진 이 작전은 과거와 달리 민간정부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점, 의회와 모든 정치세력 및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과거의 그것과 차이가 있었다(Skuma 2004, 22-23). 아체 지사의 권한이 계엄사령관에게로 이전되었고 군대가 모든 작전권을 행사하였다. 통합작전은 반군 소탕을 제1의 목표로 하였으나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삼았으며 선무활동과 경제적 지원활동을 강조하였다. 통합작전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GAM 전투력의 절반을 파괴하였고 대부분의 촌락을 GAM의 통제권에서 해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군사작전 역시 독립을 갈망하는 GAM의 투지를 잠재우지는 못했으며 아체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추가적으로 안겨주었다. 여전히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했으며 인권 유린사태가 끊이지 않았고 소개(疏開)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한편 자카르타 정부는 GAM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전의 일환으로 하산 띠로와 그의 추종자들을 국제사회에 테러집단으로 기소하였다. 스웨덴 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결과 스웨덴 검찰 조사단이 입국하기도 하였으며 인터폴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을 하였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GAM의 폭력 활동을 주목하게 되었고 GAM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체 문제가 해결되려면 단순한 군사작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음의 3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아체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아체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주이며 전 인구의 40%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둘째, 주정부의 무능과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찌 주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부패한 지방정부로서 정치인과 관료들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자금과 각종 개발자금을 착복하고 있다. 셋째, 정의의 실현문제이다. 군사작전지역 선언 이후 아찌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사태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찌 주민들의 불신은 결코 치유될 수 없다(Sukuma 2004, 29-35).<sup>5)</sup>

계속되는 정부군의 공세로 GAM의 전투력이 크게 파괴되었지만 GAM이 아찌 독립의 요구를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하였다. 그러나 2004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야에 밀어닥친 강도 9의 지진과 쓰나미 사태로 상황은 급변하였다. 북부 수마트라에서만 16만 명이 희생되었고 50만 명이 난민이 되었으며 전쟁으로 이미 파괴되었던 사회간접시설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2005년 전의를 상실한 반군은 헬싱키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평화협상에 착수하였다. 여기에는 유도요노 정부의 전례 없는 문제해결 의지도 일조를 하였다. 동년 8월 15일 GAM은 독립의 요구를 포기하였고 정부는 수감 중인 게릴라 요원들의 무조건적 사면과 GAM의 정치참여를 약속하였다. GAM의 부대 해체와 무기 반납, 정부에 의한 사면조치와 군부대의 즉각적인 철수로 1만 5천명의 생명을 뺏었던 30년 전쟁이 한 순간에 해결되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Aglionby 2005). 아찌는 보다 강력한 자치권과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 수입의 70%를 보장받았고 유럽 및 인근 국가에서 파견된 250명의 감시단이 평화협정의 준수과정을 지켜보게 되었다.

5)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부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이 문제 대해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비비 대통령 당시 조직된 특별위원회는 7천여 건의 인권침해사례 중 5건만을 기소하였는데, 와히드 정부가 들어선 후에 그것들 중 오직 1건만 법적으로 처리되었고 그것도 하급 장교들만을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 후 메가와티 정부가 들어서자 나머지 4건은 모두 흐지부지 되었다. 시민단체나 언론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IV. GAM과 정부군의 전략 비교

### 1. GAM의 전략

#### 1) 군사적 전략

1976년에 70명의 투사로 시작된 자유아찌운동은 2000년대에 들어서 6천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들은 지속적으로 무장을 강화하여 2천여 정의 소화기와 유탄발사기, 60mm 박격포 등으로 무장을 하였다. 무기들은 정부군으로부터 탈취하거나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지로부터 입수한 한 것들이었다. GAM의 전략은 현지 지형에 대한 우월한 지식과 주민들의 지원을 활용하여 지구전을 펼치는 것이었다. 그들은 매복 기습을 행하고는 산악지대로 피신하거나 주민들 속으로 몸을 숨겼다. 게릴라 부대의 한 지휘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이 공격하면 우리는 후퇴한다. 그들이 떠나면 우리는 돌아온다. 그들이 지치면 우리는 공격한다.” 다른 지휘관은 여기에 덧붙였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저지하면 충분하다.”(Schulze 2004, 34) 반군들은 몸값을 목표로 기업가들을 납치하거나 편향된 보도를 하는 언론인들을 응징하기도 하였다.

GAM이 정부군과 경찰 외에 추가적인 공격 목표로 삼은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격목표는 지방정부의 구조를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반군들은 공공건물을 공격하고 관리들을 협박하였다. GAM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치인이나 판사 혹은 촌장들 역시 납치되거나 살해되었다. 그 결과 GAM은 아찌 지방정부의 70%를 장악하고 대체 정부를 운영하였으며 독자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증명서 발급 등 통상적인 행정업무를 대신하였다. 두 번째 공격 목표는 국가교육체제를 겨냥하였다. 반군들은 학교시설을 불태우고 교사들을 공격하고 협박하였다. 그들이 교육체제의 파괴를 목

표로 삼은 이유는 학교가 자바인의 역사를 정당화하며 아제의 청소년들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학교시설의 파괴는 아제의 청소년들을 이슬람 기숙학교로 유도하고 군대가 학교시설을 숙영지로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공격 목표는 석유,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기반시설을 파괴하여 지역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인도네시아 액스 모빌사를 공격하고 직원들을 납치하였다. 그것은 아제의 천연자원을 약탈하는 행위를 저지하고 정부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네 번째 공격 목표는 자바인들이었다. 게릴라들은 이들 이주민들을 정부군의 잠재적 부역자로 간주하였고 이들이 정부군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민병대로서 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자바인들을 대상으로 방화와 살인 등 테러를 행하며 아제로부터 떠날 것을 강요하였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간주하고 GAM을 비난하였다.

## 2) 정치적 전략

1979년 망명정부를 수립한 GAM 지도부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지원을 호소하는 정치적인 노력을 효과적인 투쟁전략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국제화 투쟁은 수하르트 정권이 퇴진한 1999년 이후에 시작되었다. GAM은 한편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휴전협상에 착수하여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며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유엔을 상대로 강력한 외교전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GAM이 주장했던 아제 민족주의는 반자본주의와 반서구주의를 지향하였으며 이슬람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냉전이 종료되어 국제정치 환경이 일변하고 동티모르가 독립을 성취하자 GAM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서구적 가치를 앞세워 서구 사회의 동정을 얻으려 하였다(Reid 2006, 242).

## 3) 전략의 한계

GAM은 현지 지형에 대한 우월한 지식과 주민들의 지원을 십분 활용

하였으나 병력이나 장비 면에서 정부군의 적수가 되지 못했고 따라서 처음부터 군사적인 승리는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GAM은 정치적인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서 비타협주의로 일관하였는데 그것은 수하르토의 실각 이후 인도네시아 체제 와해가 임박하였고 반대로 아제의 독립이 필연적이라는 상황인식에 기인하였다(Reid 2006, 243). 그러나 9-11 사태 이후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부정적이 되고 민간인 납치나 학교시설 파괴 등 GAM의 테러 행위가 지탄을 받게 됨에 따라 유엔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인도네시아의 영토 보전을 지지함으로써 GAM은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 2. 정부군의 대게릴라전 전략

### 1) 군사적 전략

초기에 20명 규모의 정보요원으로 반군체포를 시작했던 정부 당국의 조치는 2003년에 이르러 3만 명의 정부군과 1만 5천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군사작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군사작전구역 선포와 더불어 채택되었던 강경일변도의 진압작전은 인권유린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내 정치의 민주화에 즈음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 결과 충분한 훈련과 장비로 전문성을 제고한 정부군은 주민들의 반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고전적인 대게릴라 전술을 구사하였다(Reid 2006, 245). 가령 2001년의 '치안회복작전'이나 2003년의 '통합작전'은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기술 및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정부군 군사작전의 기본적인 패턴은 우선 GAM을 주민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들에 대한 보급과 통신을 차단한 후에 GAM의 군사지휘부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GAM의 통신망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군은 위성전화를 이용하여 스웨덴의 지도부와 접촉을 계속하였다. 때때로 GAM의 총사령관을 살해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지만 17개 지역



사령관의 존재로 인해서 GAM 전체를 마비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반군에 협조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강제 소개되었으며<sup>6)</sup> 정부군은 입수된 명단을 근거로 촌락을 이탈한 주민들의 가택을 수색하여 은닉 중인 무기와 탄약 등을 적발하였고 이들의 주택은 담 벽에 X의 문자가 표시되어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일부 시민단체들에 대한 수색 및 압수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GAM에 우호적인 국제 NGO들은 입국이 거부되거나 출국을 강요받았다. 외부로부터의 무기 반입을 저지하고 반군의 멜라카 해협 해상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12척의 전함이 동원되었다. 또한 주민들은 충성심 서약을 강요받았으며 양민임을 표시하는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1999년 이후 정부군의 기율이 크게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게릴라 토벌 작전 과정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고문과 강간, 약식처형, 집단적 보복 사건이 그치지 않았다. 좌절한 군인들은 아제인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충성심을 결여하고 있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특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종종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군사작전의 추진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주민자위대의 존재였다. 다양한 형태의 자위대들이 조직되어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았고 칼이나 창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로 무장하였다. 자위대는 공식적인 군사작전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정보수집, 홍보 활동, 보초와 순찰, 장애물 설치 등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주민자위대의 조직은 통상적인 인도네시아 군사작전의 기본원칙(전국민방위의 원칙)이었지만 훈련 부족과 기율 문란, 책임과 통제의 한계 등의 문제가 있었

6) 군대는 아제 지역을 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백색지역은 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지역으로서 대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타운 지역이다. 회색지역은 갬 조직원이 존재하지 않으나 일부 주민들이 보급을 지원하는 지역이다. 적색지역은 갬의 기지나 막사가 없으나 완전히 갬의 통제 하에 놓여있는 지역이다. 흑색지역은 갬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완전히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이다. 중앙정부는 백색지역에 대해서만 개발지원을 약속하였다. Teuku Samsul Ba h ri, "Long Story of State Violence in Aceh," (<http://www.asiangocenter.net>) 2003. 7. 11.

고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Reid 2006, 263). GAM은 아체 지역의 주민자위대를 동티모르의 민병대와 비교하며 그들의 역할을 비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부패와 무능도 군사작전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수하르트 정권의 퇴진에 따라 탈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고 지방 정부가 보다 큰 재량권을 갖게 되자 개발자금과 구호자금의 용도를 둘러싼 각종 추문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자극하였다.

## 2) 정치적 전략

GAM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2000년부터 정치적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아체에 주둔하고 있는 외지인 군대를 철수시키고 과거에 자행된 인권유린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행하며 반군과의 대화에 착수하는 등 타협에 의한 사태해결을 기대하였다. 그것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조치였으며 아체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특별자치안이 제시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평화협상 과정에서 GAM이 목표로 삼는 국제공동체 - 유럽연합과 미국 - 의 힘을 빌어서 아체의 분리독립을 저지하려 하였다. GAM이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타협에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고 대외 홍보와 자체적인 무력 증강에만 힘을 쏟자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뒤를 따랐다. 2003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하산 띠로를 포함한 GAM 지도부를 인터폴에 수배 의뢰하였으며 스웨덴, 말레이시아, 태국 정부를 상대로 테러주의자들에 대한 법률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GAM의 활동은 국제사회의 감시와 규제를 받게 되었다(Reid 2006, 262).

## 3) 전략의 한계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종적인 군사작전은 GAM의 전투력을 크게 파괴시켰으며 법적·외교적 제제는 GAM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전략은 갈등의 근본원인 - 빈곤과 상대적 박

탈감, 정체성의 파괴 등 - 을 치유함 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함으로써 아제인들로 하여금 자치안을 수용하고 저항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데 실패하였다. 쓰나미 사태라는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더라면 아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은 많은 난관에 봉착했을 것이다.

## V. 2005년 평화협정 이후

### 1. 헬싱키 양해각서와 아제특별법 제정

헬싱키 평화협정은 신속하게 이행되었고 과거와 달리 양측은 아제 문제 해결에 진정으로 협력하였다. 헬싱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각적으로 전투를 중지한다. 연말까지 3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GAM 전투원의 무장을 해제한다. 모든 GAM 구성원들에 대해서 사면조치를 행하며 정치활동을 이유로 이미 수감 중인 1천 5백여 명의 요원들을 8월 말까지 전원 석방한다. 아제에서 정부군의 이동을 규제한다. 인도네시아 법률을 개정하여 아제에 근거를 둔 정당의 정치참여를 허용한다. 인권유린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인권법정과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아제에 설치한다. 아제가 자신의 고유한 깃발, 문장, 국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아제 지역 천연자원 수입의 70%를 현지에 할당한다. 그러나 자카르트 정부는 아제 지역의 외교, 안보, 통화, 재정, 종교, 사법 문제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는다(Pan 2005).

아제 지방의회는 GAM을 포함하여 아제의 지식인과 주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아제특별법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독자적으로 초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아제특별법 심의에 착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제에 동정적인 정당과 적대적인 정당 사이에 이견이 노정되었다. 2007년 7월에 공표된 아제특별법(LoGA)은 양해각서의 내용이 일부 수정됨

으로써 아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으나 심각한 충돌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양해각서는 자카르타의 아체 관련 정책이 아체 정부의 사전 동의(consent)를 필요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었지만 특별법은 그것을 협의(consult)의 수준으로 격하시켰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4 October 2007). 또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민간 법정 설치와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구성 규정이 삭제되었다. 정부군 주둔 제한 규정 역시 쓰나미 사태에 따른 재해 복구 작업 필요성을 이유로 생략되었다.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아체특별법은 아체의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정치의 민주화에도 일조를 하였다. 가령 2007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체특별법이 지역정당의 후보뿐만 아니라 무소속 후보도 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Braun 2007).

새로 선출된 이완디 유수프 아체 주지사는 아체 특별법의 개정을 다짐하고 있으나 아체 선거에서 GAM이 압승을 거둔 사실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자카르타 정계의 시각을 감안하여 성급한 법률개정 시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2. 총선거 실시와 사회통합 정책

2006년 12월 실시된 아체 선거에서 GAM 출신의 이완디 유수프가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선거과정에서 스웨덴 망명 정부에 세력기반을 둔 노장파와 현지 게릴라 부대 지휘관 출신의 소장파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있었고 각각은 독자적인 후보를 내세웠다. 청년 터키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소장파들이 지지하는 유수프가 38%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는데, 노장파 세력이 지지했던 후보의 득표율 17%를 감안한다면 GAM은 8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인 주지사 선거에서 55%의 지지를 얻어내는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GAM은 시장과 군수 선거에서도 21개 선거구 중 19

개 선거구에 진출하여 8개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07년 9월 현재 인구 기준으로 GAM은 아찌 지역의 49.6%를 통제하게 되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4 October 2007).

예상을 뒤엎은 이러한 선거 결과는 기존 정당과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아찌 주민들의 실망감 외에도 GAM의 조직력이 크게 작용을 하였다. GAM은 이전의 게릴라 부대 지휘관 출신들로 구성된 아찌과도위원회(KPA)라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한 후에 아찌 독립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대학생 단체(SIRA)와 제휴하여 투표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2 March 2007). GAM은 2009년 총선거가 실시되기까지 자체 조직을 해체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2006년 12월 선거의 승리로 GAM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직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해당 지역 게릴라 부대의 지휘관들은 이 과정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 GAM 출신 인사들이 과연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확답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선거 후 아찌과도위원회는 각종 사업과 이권에 개입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부족으로 다수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하에서 불법적인 벌목사업에 개입하고 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4 October 2007). 따라서 이후의 문제는 아찌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GAM 세력이 행정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부정과 부패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GAM의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 역시 하나의 변수이다. GAM은 향후 2009년 선거와 관련하여 3개의 정당으로 분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평화협정의 체결과 더불어 반군 전투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재통합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사업의 취지는 정부의 선의를 증명하고 전투원들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데 있었으며 해당자들에게는 현금이 지급되었다. 수형자, 전투원, 기타 피해자라는 3개의 범주를 통해 정착자금이 지원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과 자금 전달 방식을 놓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GAM사이에 마찰이 일었다. 가령 수감자

의 경우에는 순수한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기소된 것인지 혹은 범죄적 행위와 연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며, 전투원의 경우에는 정부가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GAM측은 해당자의 신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총원에 대한 일괄 지급방식을 주장하였다. 초기에는 GAM의 지역 사령관 모임인 아찌과도위원회의 요구가 관철됨으로써 자금은 지역별로 전투원의 숫자에 따라 사령관들에게 분배되었으며 분배의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 후 공식적인 관리 부서인 아찌재통합위원회(BRA)가 조직되었고 위원회는 KPA가 제출한 명단을 기초로 자금을 지급하였지만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혹은 그들이 실제로 돈을 수령하였는지 여전히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자금 지급방식으로 인해 수혜대상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었으며 내부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KPA는 자금 분배의 권한을 이용하여 후견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4 October 2007). 명단 작성 과정에서 게릴라 부대 지휘관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생계비 지원 대신에 피해 지역의 사회간접시설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KDP)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만한 자금관리와 파당적인 분배 방식은 여전히 문제가 되었다. 급기야 주지사 유수프는 아찌재통합위원회의 쇄신을 결심하고 명망가인 드줄리(Djuli)를 조직의 수장에 임명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게 되었다.

## VI. 맺는 말

유도요노 정부는 아찌 문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본토의 일반적인 분위기 역시 아찌 사태가 해피 엔딩으로 종결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아찌인들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며 갈등이 재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찌특별법이 헬싱키 양해각서의 기본

정신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한, 상황은 시한폭탄과 같을 수 있다 (International Crisis Group, 4 October 2007). 특히 인권유린사태의 진상 조사를 위한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설립요구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아제의 내부적인 문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현재 아제 지역은 말리크 마우드가 이끄는 스웨덴 망명정부 세력과 유수프 지사가 이끄는 야전 지휘관 세력이 대립하고 있으며 2009년 선거에 대비하여 3개의 정당으로 분열되고 있다. 아제 재통합자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주민들 사이에 앙금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행정 경험이 없는 GAM 정부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정과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파푸아처럼 아제를 2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는 방안도 잠재적인 갈등요인이다. 2006년의 지방선거에서는 아제 동남부 지역의 분리를 주장하는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패배한 바 있다.

국제위기그룹은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하고 있다: 첫째, GAM 당국은 지방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자체 요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고 부패를 근절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벌목사업들을 동결해야 한다. 또한 헬싱키 양해각서의 완전한 이행문제는 자카르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며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제특별법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완해야 하며 규정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서 진정한 자치의 실현에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3자가 개입함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反)아제분리주의 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자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제 재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외부단체들은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감사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4 October 2007). 아제 특별자치주가 진정한 의미의 특별자치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자유아제운동 양자 모두가 인내심을 가지고 힘들게 얻어낸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제대식, "인도네시아 아체 분리독립운동의 배경과 전개," 『동남아시아연구』 13권 1호 (2003).
- Aglionby, "Legacy of Tsunami Bring Peace to Aceh." *The Guardian* (August 15, 2005).
- Braun, Sebastian, "The Legislative deliberations on the Law on the Governance of Aceh," *Watch Indonesia: Information & Analysis* (21 September 2007).
- Hillman, Ben, "Aceh's Rebel Turn to Ruling."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5/1/07).
- Human Right Watch Aisa Division, "Indonesia: The War in Aceh" *Human Right Watch* Vol.13, No.4 (August 2001).
- International Crisis Group, "Aceh: So Far, So Good." *Asia Briefing* No. 44 (13 December 2005).
- International Crisis Group, "Indonesia: How GAM Won in Aceh." *Asia Briefing* No. 61 (22 March 2007).
- International Crisis Group, "Aceh: Post-Conflict Complications." *Asia Report* No. 139 (4 October 2007).
- Pan, Esther, "Indonesia: The Aceh Peace Agreemen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eptember 15, 2005).
- Reid, Anthony(ed.), *Verandah of Violence: The Background to the Aceh Problem*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2006).
- Riiber, Kris Ann, "Aceh, Indonesia: Governor and District Elections December 2006-March 2007," NORDEM Report 03/2007
- Sukma Rizal, *Security Operation in Aceh: Goals, Consequences, and Lessons* (Washington: East-Weat Center, 2004).



Schulze, Kirsten E., *The Free Aceh Movement: Anatomy of a Separatist Organization* (Washington: East-Weat Center, 2004).

<ABSTRACT>

**A Thought on Separatist Movement in Aceh**

Won-Seok Chang

Rebels from the Islamist Free Aceh Movement(GAM), which has fought for independence from Jakarta for nearly 30 years, turned in their weapons to international monitors on 15 September 2005, an important first step toward peace in Indonesia's troubled Aceh province after a nearly 30-year civil war.

In December 2006 local election, the people of Aceh elected a GAM governor and put GAM in control of seven of nineteen districts fielding candidates.

Peace in Aceh continues to hold but where the Yudhoyono government and many in Jakarta see a closed book with a happy ending, many Acehnese see a temporary respite, from a conflict that will inevitably resume.

This paper analyse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conflict. then post-conflict complications will be examined.

**Key Words** : Aceh separatism, Free Aceh movement, Hasan di Tiro

